



동국대동창회보

The Dongguk Alumni News / <http://www.dongguk.or.kr>

2006년(단기 4339년) 4월 6일 특별 호외

발행인 宋錫球

편집인 宋在晚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우의 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은행지로번호 7500891

11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 Tel. 02)733-3991/3 · Fax. 02)733-3992 · 년회비: 2만원

화합하여 발전하는 동창회

동국 100년 역사 속에 동문이 하나가 되어야

- 4월 10일 임시이사회 및 총회 소집 통보는 불법이다

- 동창회와 재단, 학교의 2005년 9.29화해 정신 반드시 관철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는 임원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만 동국인의 열원을 하나로 모아
동국대학교 법인 현해 이사장과 학교
홍기삼 총장, 총동창회 류주형 회장은
작년 9월 29일 이사장실에 모여 그간
의 상호 불신과 갈등을 깨끗이 청산하
고 대화합의 바탕위에 동국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화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얹혀있던 구성원 상
호간의 불신 해소와 화합정신으로 본
회는 동국 100년을 우리 20만 동국인
의 한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모교와 긴
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류주형 회장이 건강상 이
유로 지난 2월 사임을 하고 수석부회
장인 송석구 동문이 회장직무대행을
맡아 총동창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러나 지난 2월 23일 임시이사회에서
류주형 23대 총동창회장의 사표가 수
리된 후, 후임 총동창회장 보선과 관
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발송된 정재철·황
명수 고문님의 4월 10일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첫째, 정재철·황명수 고문께서 '동
창회장 추대에 따른 절차와 내용에 관
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3일 임시이사회의
결의는 김재기 동문의 동의 발언 중,
정재철·황명수 고문에게 회장 추대
로 하자는 의견과 또한 선거법과 선거
법 시행세칙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의 제청 의결된 부분은

선거법과 선거법 시행규칙이었습니다.(녹취록 참조)

따라서 두 분의 포괄적인 위임은 합
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3월 31일까지 이사회 소집요
구를 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3월 31일 아침에 내용증
명으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셋째, 100주년 기념식에 정식 회장
이 참가해야하고, 4월 7일 외국에 보
낼 공문에 회장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100주년 기념식에 대행보다 회
장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그
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월 7일까지 초청장을 보낸다
면 4월 10일은 이미 초청장 보낸 이후
입니다. 이는 편법으로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겠다는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동창회는 회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아무리 포괄적인 위
임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회칙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회칙을
어긴 적법하지 못한 불법적인 소집 통
고이고 이러한 발상은 동창회의 근본
취지인 화합, 단합의 이념을 인위적으
로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이
사회 및 임시총회 소집요구는 전적으로
불법이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두 분에게 있음을 천명합니다.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
된 회칙을 보면, 본회 회칙 제13조에
의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로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임시이사회와 관련
하여 제15조 2항에는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
사 100인 이상의 서면 요구 시에 회장
이 이를 소집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
및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현재는 회장직무대행 만이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마땅히 지켜야 할 순서와
규칙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국가에는
명문화된 '법'이 있고, 본회에는 명문화된
'회칙'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혼란을 야기하여 동국발전
을 염원하는 20만 동문들의 외면을 받
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총동창회 회칙에 입각하여 이
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보고자 합니다.

본회는 화해 정신을 바탕으로 4월 18
일 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동창회와 재단, 학교의 2005
년 9.29화해 정신을 끝까지 관철할 것
입니다.

임원들의 혁명한 판단과 견승을 빕
니다.

총동창회장 직무대행 송석구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박영식

장장순

윤천영

유영수

홍파스님

권석충

이재형

남기일



공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 일 시 : 2006년 4월 18일(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타워호텔 (장충동 소재)

● 안 건 : 제1호 의안 :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제2호 의안 : 임원 보선의 건

제3호 의안 : 기타 안건



東國大學校總同窓會

DONGGUK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P/N 110-718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7-28번지(백상빌딩 302호). TEL : 02-733-3991-3 FAX : 02-733-3992

수신 : 정재철, 황명수 고문님

제목 :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소집 요구답변서

본회 발전에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문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회는 귀 고문님의 2006년 3월 27일자 본회 임시이사회 소집 요청서에 대한 2006년 3월 31일까지의 서면 회신을 요구한 답변서입니다.

먼저 본회는 지난 2006년 2월 23일 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서 본회는 선거법 및 선거시행세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회칙 제12조에 의거 임원 보선에 대해서는 추대든 경선이든 5월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회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추후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1. 2월 23일 임시이사회에서 의장의 결의 내용이 선거법 및 선거시행세칙을 정재철(본회 고문) · 황명수(본회 고문) 두 분에게 협의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본회에서는 선거법 및 선거시행세칙을 4월 5일까지 제정하여, 일정상 가능한 2006년 제2차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4월 20일 전후로 개최예정 이므로 2006년 4월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관례에 따라 시간상 어렵습니다.

3.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는 본회 회칙 제13조 2항과 제15조 2항에 의거, 본회에 이사 100인 이상의 서면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하게 되어있으므로, 정재철 · 황명수 고문 두 분의 명의로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혜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

東國大學校總同窓會會長代行宋錫球

이 우편물을 2006-03-31 제 01001840
후에 확인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관훈동 취급소장

모교 창학 100주년 기념행사 일정

4월

- 6~8일 : 총무로 열린 영화축전
- 24일 : 전통등 전시회/동국백년전/캠퍼스 미래모형전/터닝더페이지 설치
- 26일~5월 9일 : 시화전
- 28일 : 동국 백년사 발간

5월

- 매주 수요일 : 달빛 연등 콘서트
- 1일 : 건학참여사찰 기념비 제막식/학교 메인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 2~4일 : DMZ 생태학술대회
- 8일 : 100주년 기념식/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기공식/기념우표발행/박영석 동문 히말라야 등정
- 9일 : KBS 열린음악회/동아시아연구소 창립기념 강연회

성명서



동국대학교 법인, 학교, 동창회를 대표하여 한 자리에 모인 우리 3인은 동국 백년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짊어진 막중한 책임을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백년 전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전국 사찰에서 삼보의 정재를 모아 설립한 동국대학교는 명진, 불전, 혜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한국불교의 거룩한 교육 이상을 대표해 왔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건학 백주년을 맞이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깊은 성찰과 자기갱신의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인은 동국의 역사에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실감합니다.

우리 각자의 독선이 동국 발전에 최대의 장애가 된다는 점은 서로 인정한 바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3인만이 아니라 동국인 모두에게 합심과 분발을 요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스스로 반성하며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법인과 학교는 그간 동창회와 관계가 소원한 데서 비롯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학교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학교는 법인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교수 및 직원 사회의 조화로운 통합, 동창회와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에 동창회는 학교 발전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을 표명합니다.

이제 우리 3인은 새로운 동국 백년의 거룩한 책임을 되새기며 동국가족은 물론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불교인과 교육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동국인 모두가 11월 23일 대화합의 한마당에 모여 한마음으로 동국 발전에 협력하기를 호소합니다.

우리 3인은 오늘 서명을 통해서 그간의 상호 불신과 갈등을 깨끗이 청산하고 대화합의 바탕 위에 동국 백년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2005년 9월 29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현해 金玄海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 泓基三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류주형 柳周馨

- 13일 : 동국인 한마당 축제

- 17~19일 : 대동제

- 25~26일 :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

7월

- 3일 : 해외동문자녀 리더쉽 프로그램 시행(7월~8월)

9월

- 11~13일 : 백주년 기념 연극제
- 15일 : 타임캡슐 봉안

10월

- 11일 : 난치질환 국제학술대회

11월

- 3~4일 : 퇴행성질환 국제학술심포지엄

12월

- 5일 : 100주년 기념 갈라쇼



동국대동창회보

特報版

The Dongguk Alumni News / www.dongguk.or.kr

발행인 류근창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2207호 (임시사무처) TEL. (02)734-7308, 7309 FAX. (02)737-7308

2006년 4월 11일 (화)

류근창 총동창회장 만장일치 선임

**류회장 “대화합 정신으로 총동창회 정상화 이루겠다” 취임포부 밝혀
고문단 및 원로, 각계 중견 동문들 성황을 이룬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돼
이사 158명 등 총 401명 참석,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성료**



▶ 제24대 총동창회장에 추대된 류근창 신임회장이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총동창회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4월 10일 오후 6시30분 소피텔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제24대 총동창회장에 류근창(50 문학, 총동창회 고문)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 추대했다. 아울러 임시총회에서는 참석 동문들 전원이 류근창 신임회장에게 회장단 구성 등 총동창회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키로 의결했다.

박희부(65 법학, 전 국회의원, 총동창회 지도위원) 동문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제24대

총동창회장에 선임된 류근창 회장은 “대화합의 정신으로 동창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하고 “모교의 건학 백주년이 임박하여 당면 현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총동창회의 대화합을 이루어 동창회의 발전,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총동창회를 만들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혀 참석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김현해 재단이사장은 임영담 재단이사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모든

명문대학들이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특히 동문들의 후원이 결정적이었다”며 “동문 여러분이 모교 발전이라는 대의의 방향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바라는 뜻을 밝혔다.

또 서윤길 모교 대학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홍기삼 총장은 “동창회는 모교의 힘인 동시에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전 동문이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모아 지난 백년을 자랑하고 새 백년을 설계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류근창 신임회장은 모교 정성 전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는 지난 2월 23일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동창회장 추대에 따른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정재철, 황명수 전동창회장 외 이사진의 발의에 의해 개최되었으며(2면 경과보고 참조), 임시이사회에는 158명의 이사(위임 56명)가 참석하여 성원을 이루었고 임시총회는 291명의 동문(위임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진행이 이루어졌다.

신임 류근창 회장은 지난 2월 사임한 류주형 전회장의 잔여임기인 2007년 5월 정기이사회까지 재임하게 된다.

류근창 신임회장 약력

◎ 학력

- 1946. 12. 육군사관학교 2기
- 1950 동국대학교 전문부 문학과
- 1953. 육군대학교
- 1967. 7. 국방대학원
- 1976. 3. 중화민국 문화원 명예철학박사

◎ 경력

- 1956. 7. 육군 보병 제30사단장
- 1960. 4. 육군 보병 제20사단장
- 1965. 3. 육군 제5군단장
- 1968. 8. 합동참모본부장 겸 대간첩대책 본부장
- 1970. 4. 육군 중장 예편
- 1973. 10. 원호처장(장관급)
- 1979. 3. 한국토지공사 사장
- 1985. 10. 사단법인 류관순열사 기념사업회 회장(현)
- 1986. 3. 한국주택협회 회장
- 1982. 3. ~ 2004. 2. 재경총우회 회장
- 2004. 2. ~ 2006. 2. 충청향우회 중앙회 총재

◎ 상훈

을지무궁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국선장, 보국훈장 천수장, 흥조근정훈장, 청조 근정훈장, 독일 십자훈장, 태국 백상훈장, 자유중국 운휘 훈장, 월남 보국훈장, 방위표창, 대통령 표창 외

류근창 제24대 총동창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정재철 (전 정무장관, 국회의원, 전 동창회장)
황명수 (전 민자당사무총장, 전 동창회장)
강영규 (전 경찰대학장)
김동식 (김포시장)
김동정 (변호사)
김상훈 (부산일보 대표이사)
김성섭 (대영통상(주) 회장)
김영란 (전 국회출입기자, 동녀회장)
김용환 (서울보증 이사)
김재기 (한국씨름연맹 총재, 전 주택은행장)
김재주 (죽의령군수)
김재형 (SBS 드라마 제작국 감독)
김희형 (해외한민족연구소 감사)

남상용 (크로비백화점 회장)
마경자 (H&K플라자 대표)
문태식 (아주산업(주) 회장)
문한성 (변호사)
박상규 (전 국회의원, 중기협동조합중앙회장)
박영식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
박종윤 (주)세창 회장)
박희부 (전 국회의원)
신순범 (전 국회의원)
신찬균 (언론중재위원회 전 세계일보 주필)
여익구 (한국남동발전 감사)
오진모 (부동산연합회장)
유인학 (전 국회의원, 한국조폐공사 사장)

이상윤 (전 석탄공사 사장)
이석용 (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전 행정자치부장관)
이원범 (전 국회의원)
임덕규 (전 국회의원, 월간디플러머시 회장)
전경주 (삼광인쇄 문화사 회장)
정인악 (주)남양사 회장)
정현화 (THE&C 회장)
조승수 (민노당 17대 국회의원)
홍숙자 (ALTRUSA고문, 전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
홍영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황갑손 (한국지역개발자치회 회장, 전 전주대총장)

재단이사장 致辭 (요약)

재산이사 영담스님 대독



금년은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고 민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明進學校가 설립된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마침 류근창 고문께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에 추대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동문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佛家에서는 善도 생각하지 말고(不思善) 惡도 생각하지 말라는(不思惡)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善惡에 초연한 채 현실을 방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만의 善과 惡를 생각하여 강요하기에 앞서, 그 주장의 근거가 자신만의 我執이나 집단의 獨善은 아닌지 되짚어 보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부처님의 전당에 그 어떤 사욕의 파당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아집과 독선이 부처님의 정신에 위배됨을 뼈저리게 참회하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참회한 분들을 모두가 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일념으로 용서하고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술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물과 얕은 물은 그 흐름이 다르다. 바다의 얕은 개울 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고 넓은 바다의 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소리로 내는 법 없이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전당인 우리 동국대학교가 화합의 의지로 가득 채워졌을 때, 동국 발전이라는 우리의 희망은

총장 祝辭 (요약)

서윤길 대학원장 대독



정재철, 황명수 선배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후배 여러분! 먼저 오늘 제24대 총동창회장에 선출된 류근창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모교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모교가 길러낸 각계의 인재들이 모인 단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창회는 모교의 힘입과 동시에 미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 모교는 이제 백년의 돌진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뜻있는 날에 선후배 여러분, 우리 동창회가 모교과 더불어 하나의 배를 타고 힘찬 뒷을 옮겨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할 뿐입니다. 작은 것 버리고 큰뜻 모아서 지난 백년 사랑하고 새 백년 설계하며, 머리 맞대고 가슴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



▶ 총동창회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에는 정재철, 황명수 전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남상용, 김성섭 고문, 정인악, 신순범, 이연택 부회장 등과 모교 영담재단이사와 서윤길 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단상 중앙은 박희부 임시의장.

역사의 깊고 심원한 물줄기가 되어 조용하지만 도도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동서양의 모든 명문 대학들이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특히 동문들의 후원이 결정적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이 세계 수준의 초일류 대학이 되기 위해선, 동문 여러분의 후원이 학교 발전이라는 大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부처님의 전당에 사욕을 떠난 화합의 정신으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때입니다.

끝으로 동문 가족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현신적인 노력과 열성적인 후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불보살님들의 무한의 기회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현해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경과보고 주요내용

▲ 작년 5월 총동창회장에 선출된 류주형 회장이 수개월만에 동문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송석구 고문을 자신의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였고 송석구 고문은 임시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소집하여 자신이 총동창회장이 되고자 하였으나 동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2006년 2월 23일 :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동창회장 선출에 관해 동창회의 분열을 우려하는 다수 동문들의 뜻을 대변한 김재기 동문의 ‘현재 활동중인 전임 동창회장 정재철, 황명수 두분에게 위임해서 협의를 통해 추대가 되면 제일 좋고, 가장 좋은 것은 누가 봄이 사람이 동창회장감이다 하면 추대가 좋고, 안 되면 경선을 위한 시행세칙을 만들자’는 제안을 참석 의사 400여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 3월 6일 : 정재철, 황명수 고문은 총동창회 송재만 쳐장에게 ‘총동창회장의 선출은 지난번 2월 23일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모든 동문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대가 불가한 경우에는 경선을 위한 선거세칙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알려주고 ‘백주년을 맞는 모교 동창회장 선출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 신속히 임시이사회 일정과 장소를 선정하여 알려줄 것’을 1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 3월 21일 : 총동창회 송재만 쳐장을 다시 불러 총동창회장 선출을 위한 동창회족의 준비 사항을 물어본 바 송재만 쳐장으로부터 『4월 말일이나 5월초 임시이사회 개최 예정으로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사무처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신임 총동창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동문들이 단결하여 참여해야 하는 모교의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2006년 4월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와 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또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 3월 27일 : 법률적 자문을 득한 후 내용 증명을 동창회 사무처에 발송(임시이사회 소집 요청서). 내용은 이사회와 총회를 2006년 4월 10일 이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2006년 3월 31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단, 이사회와 총회 소집에 관한 동창회족의 조치가 전체 동문의 기대에 미흡하고, 모교의 백주년 기념행사의 일정에 차질을 주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난 2006년 2월 23일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창회

장 추대에 따른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정재철, 황명수 2인의 명의로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3월 28일 : 모교가 4월 7일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장 발송 완료 계획인 것을 4월 10일까지 총동창회장을 선출하여 학교의 백주년 주요행사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업무 협조 요청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 4월 1일 : 회신 시한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부득이 지난 2월 23일의 임시이사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정재철, 황명수 외 이사 일동이 임시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4월 10일 : 소집안내문을 담은 우편물이 우체국에 접수된 후 그제서야 총동창회 사무처에서는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4월 20일 전후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법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모교의 중요한 백주년 행사에 누구에게나 존경 받을 수 있는 동창회장을 참석시켜야 한다는 20만 동문들의 바램을 저버린 것입니다.

제 7 회 동국포럼 안내

한덕수 부총리 초청강연

일시 : 2006년 4월 19일 (수) 오전 7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회비 : 3만원 (조찬을 함께합니다.)



동국대동창회보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The Dongguk Alumni News / <http://www.dongguk.or.kr>

2006년(丁巳 4339년) 4월 13일 특별 호외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우의 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은행지로번호 7500891

11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 Tel. 02)733-3991/3 · Fax. 02)733-3992 · 년회비: 2만원

4월 10일 불법 집회에 대한

규탄대회 및 임시이사회 · 임시총회 개최

- 9. 29 성명의 재단, 학교, 동창회
화합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
- 정체를 알수 없는 건장한 청년 동원
동문 출입 저지
- 일부 임원 발언 저지하고 밖으로 끌어내



▲ 발언을 저지 당하는 권오갑 본회 이사.



▲ 정체를 알수 없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집회 안팎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 발언을 저지당한 후 강제로 착석한 유영수 본회 상임부회장.

공고

총동창회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 일 시-이사회 : 2006년 4월 18일(火) 오후 6시 30분
총 회 : 2006년 4월 18일(火) 오후 7시 30분
- 장 소-타워호텔(장충동 소재)

- 안건-제1호 의안 :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보선의 건
제3호 의안 : 기타 안건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20만 동문 가슴 갈기갈기 찢어 논

4월 10일 불법 집회를 규탄한다.

- 총동창회 분열음모 저지해 정통성 살리자
- 정재철 · 황명수 고문 불법으로 이사회 소집 회장 선출
- 회칙을 위반한 칼 없는 폭력

- 국가에는 명문화된 ‘법’이 있고 본회에는 명문화된 ‘회칙’이 있다.
- 4월 18일 오후 6시 30분 총회서 불법 집회 규탄하여 정통성 있는 회장 선출 해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15조 2항에 보면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 100인 이상의 서면 요구 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임시총회와 관련 본회 회칙 제13조 2항에는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 및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 통보를 하며, 현재는 회장 직무대행 만이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사회 · 총회

개인명의 소집 불가

그러나 지난 4월 10일 정재철 · 황명수 고문 측은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 원호처장 류근창 고문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이어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는 명백한 총동창회 회칙을 위반한 것으로 처음부터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으로 법적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 모임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류근창 고문은 오는 4월 18일 개최되는 총동창회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에 총동창회장 후보는 될 수 있어도, 20만 동국인을 대표하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사회는 마땅히 지켜야 할 순서와 규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국가에는 명문화된 ‘법’이 있고, 본회에는 명문화된 ‘회칙’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혼란을 야기하여 동국발전을 염원하는 20만 동문들의 외면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음해 세력에 동문들 분노

이날 불법적인 이사회를 폭격한 동창회 00임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엄연히 이사회와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사무처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국대학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다니 너무 창피해서 동국대 동문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또 입원은 “정재철 · 황명수 고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두 분에게 회장 추대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며 임시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고 회장을 추대할 수 있는가. 이는 명백한 횡포로 우리 20만 동문들이 단합하여 이를 분쇄하고 정통성 있는 총동창회를 만들어

동국 100년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분개했다.

회의장 안팎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건장한 젊은이 30여명 동원

총동창회에서는 지난 3월 27일 정재철-황명수 고문 측이 보내온 ‘임시이사회 소집 요청’ 공문에 대해 3월 31일 내용증명으로 ‘4월 20일 전후한 특정일을 선택해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고, 여기에 4월 6일 동창회보 호외를 발간, ‘4월 18일 타워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모든 동문들에게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철 · 황명수 고문 측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4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해 어처구니 없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전후상황을 모르는 동문들께서는 4월 10일 임시이사회에 참석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건장한 젊은이 30여명이 회의장 입구와 안에 서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자신들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총동창회 현 입원들의 입장을 저지하는 모습도 목격했을 것이다.

동국 1백주년의 한 축인 총동창회는 불법적으로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고 류근창 고문을 회장으로 선임한 정재철 · 황명수 고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는 4월 18일 열리는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합법적 절차를 거쳐 20만 동문을 대표하는 총동창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동국대 총동창회장을 선출해, 작년 9월 29일 재단과 학교, 총동창회가 대화합의 바탕위에 동국 백년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 성명서 발표를 상기하여 다가오는 개교 1백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도록 하자.